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비만상태에 따른 체형만족도와 체형존중감에 관한 연구

백경신

세명대학교 간호학과

〈 목 차 〉

I. 서 론
II. 연구대상 및 방법
III. 조사결과
IV. 고 찰

V. 요 약
참고문헌
Abstract

I. 서 론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가, 식생활의 서구화 및 활동량의 감소에 따라 비만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 초, 중, 고교 학생들의 비만 빈도 조사에서 이동환(1996)에 의하면 남아는 1984년 9%에서 1994년에는 19%로, 여아는 7%에서 16%로 10년만에 2배 이상 증가되어 비만이 성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아동이나 청소년에게도 심각한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비만은 체지방이 과잉 축적된 상태로 성인의 경우에는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의 결과로 인한 지방 세포의 비대에 의한 경우가 많은 반면 아동이나 청소년 비만은 대부분 지방 세포의 증가에 의하므로(문정순과 정승교, 1996) 신체 전반적으로 뚱뚱하며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잘 조절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지방간,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의 위험인자로 작용하고 약 80%에서 성인비만으로 이행된다(Lauer et al, 1993 ; 박혜순, 1997). 뿐만 아니라 성장기 아동의 비만은 성장 발달에 영향을 미쳐 열등감, 소외감 및 부정적인 신체상과 자존감 저하, 우울, 대인관계 기피 등의 많은 심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Sheslow et al, 1993).

학동기는 제 2의 급속한 성장과 성적 성숙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도 점점 넓어지고 또래들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신체상이 발달되어 가며 자기 몸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Blaesing & Brockhaus, 1972). 특히 대중매체를 통한 비정상적으로 마른 체형을 동일시하여 자신이 비만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비만하다고 생각하는 외곡된 신체상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비만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신체

만족도가 낮았다(조선진과 김초강, 1997). 또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학생은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고 위험한 식이요법을 시행하거나 폭식이나 절식, 구토 등의 비정상적인 식이행동을 나타내는 가능성이 많으며(McCarthy, 1989; Mores et al, 1989)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immons et al, 1973).

활동기는 신체발육과 앞으로의 인격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기의 비만관리는 중요하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비만상태를 파악한 후, 비만상태에 따라 체형만족도와 체형존중감의 차이와 이들간의 관계를 조사하여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비만상태를 파악한다.
- 2)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비만상태에 따른 체형만족도와 체형존중감을 파악한다.
- 3)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비만도와 체형만족도 및 체형존중감과의 관련성을 알아본다.
- 4)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일반적 특성별 비만상태를 파악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재천시의 5개 초등학교를 임의 선정하여 6학년 학생 중 신체적인 결함과 정신적으로 학습에 장애가 없는 건강한 아동을 조사하였으며 이 중 설문내용이 부실한 48명을 제외한 669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신체계측과 설문지 조사는 1999년 5월 1일에

서 5월 30일까지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고 신체계측은 양호교사가 정기 신체검사에서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설문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문항, 체형만족도 2문항과 체형존중감을 측정하는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체형만족도는 김순남(1998)이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9개의 그림 중에서 ‘어느 것이 당신의 현재 체형과 비슷합니까?’와 ‘당신이 원하는 체형은 어느 것입니까?’의 질문에 대해 각각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원하는 체형과 현재의 체형이 차이가 없으면 만족하는 것이고 차이가 ‘-’이면 날씬해지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차이가 ‘+’이면 뚱뚱해지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체형존중감은 Mendelson & White(1982)가 개발한 도구를 박진아 등(1997)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문항은 외모, 몸매, 체중 등에 대한 긍정 정도를 묻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문항에는 “예”에 1점, 부정적인 문항에는 “아니오”에 1점을 주어 총 2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체형존중감이 높은 것을 나타내며 도구의 신뢰도는 KR-20 = .8415 이었다.

비만도는 Broca지수 변법(임상영양관리지침서, 1994)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하였다.

$$\text{Broca's index} = \frac{\text{현재체중(kg)}}{\text{표준체중(kg)}} \times 100$$

$$\begin{aligned} \text{표준체중} &= (\text{신장(cm)} - 100) \times 0.9 : \\ &\text{신장이 150cm 이상인 경우} \\ &(\text{신장(cm)} - 100) : \\ &\text{신장이 150cm 미만인 경우} \end{aligned}$$

Broca 지수가 120이상일 경우 비만군, 111-119는 과체중군, 90-110은 정상군, 89이하는 저체중군으로 분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과 비만상태는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비만상태에 따른 체형만족도, 일반적 특성별 비만상태는 교차분석, 비만상태에 따른 체형존중감은 분산분석(ANOVA), 비만도와 체형만족도 및 체형존중감과의 관련성은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Ⅲ. 조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총 669명으로 남학생 336명(50.2%), 여학생 333명(49.8%)이었고, 형제 순위는 첫째 348명(52.0%), 둘째 252명(37.7%), 셋째이상 69명(10.3%)으로 남녀 모두 첫째가 많았다. 부모의 학력은 남 여 모두 고졸이 많았으며, 부모의 체형과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은 남 여 모두 보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남	여	전 체
		실수(%)	실수(%)	실수(%)
형제 순위	1	171(50.9)	177(53.2)	348(52.0)
	2	132(39.3)	120(36.0)	252(37.7)
	3 이상	33(9.8)	36(10.8)	69(10.3)
부의 학력	초등졸	17(5.1)	9(2.7)	26(3.9)
	중졸	40(11.9)	29(8.7)	69(10.3)
	고졸	193(57.4)	217(65.2)	410(61.3)
	대졸이상	86(25.6)	78(23.4)	164(24.5)
모의 학력	초등졸	24(7.1)	16(4.8)	40(6.0)
	중졸	51(15.2)	54(16.2)	105(15.7)
	고졸	220(65.5)	225(67.6)	445(66.5)
	대졸이상	41(12.2)	38(11.4)	79(11.8)
부의 체형	마름	52(15.5)	60(18.0)	112(16.7)
	보통	256(76.2)	233(70.0)	489(73.1)
	비만	28(8.3)	40(12.0)	68(10.2)
모의 체형	마름	34(10.1)	52(15.6)	86(12.9)
	보통	259(77.1)	244(73.3)	503(75.1)
	비만	43(12.8)	37(11.1)	80(12.0)
체형에 대한 인식	마름	77(22.9)	60(18.0)	137(20.5)
	보통	217(64.6)	236(70.9)	453(67.7)
	비만	42(12.5)	37(11.1)	79(11.8)
성 적	상	93(27.7)	89(26.7)	182(27.2)
	중	171(50.9)	185(55.6)	356(53.2)
	하	72(21.4)	59(17.7)	131(19.6)
		336(100.0)	333(100.0)	669(100.0)

통인 경우가 많았다.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에서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남자 42명(12.5%), 여자 37명(11.1%)로 남자가 더 많았다. 학업성적은 중 356명(53.2%), 상 182명(27.2%), 하 131명(19.6%) 순으로 남녀 모두 중이 많았다(표 1).

2. 대상자의 비만상태와 신체계측

비만상태는 전체에서 정상체중군이 344명(51.4%), 저체중군이 165명(24.7%), 비만군이 94명(14.0%), 과체중군이 66명(9.9%)으로 나타났다. 남자에서는 정상체중군 188명(56.0%), 비만군 72명(21.4%), 과체중군 41명(12.2%), 저체중군 35명(10.4%)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에서는 정상체중군 156명(46.8%), 저체중군 130명(39.0%), 과체중

군 25명(7.6%), 비만군 22명(6.6%) 순으로 나타나 남자에서 비만율이 높았다(표 2-1).

비만상태별 신체계측은 남자에서 평균 체중은 비만군이 59.35kg(표준편차, 10.992), 과체중군 55.14kg(표준편차, 5.105), 정상체중군 45.06kg(표준편차, 6.644), 저체중군 35.50kg(표준편차, 4.189) 순으로 나타났고, 평균신장은 과체중군 152.54cm(표준편차, 6.227), 비만군 150.33cm(표준편차, 9.335), 정상체중군 149.35cm(표준편차, 7.467), 저체중군 145.64cm(표준편차, 6.062)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에서는 평균 체중이 비만군 64.80kg(표준편차, 7.307), 과체중군 53.45kg(표준편차, 4.189), 정상체중군 45.66kg(표준편차, 5.082), 저체중군 36.46kg(표준편차, 4.870) 순으로 나타났고, 평균신장은 비만군 156.27cm(표준편차, 6.537), 과체중군 151.09cm(표준편차, 5.596),

<표 2-1> 비만상태

구 분	남	여	전 체
	실수(%)	실수(%)	실수(%)
저체중	35(10.4)	130(39.0)	165(24.7)
정상체중	188(56.0)	156(46.8)	344(51.4)
과체중	41(12.2)	25(7.6)	66(9.9)
비만	72(21.4)	22(6.6)	94(14.0)

<표 2-2> 비만상태별 신체계측

구 분	남		여	
	체 중(kg) 평균(표준편차)	신 장(cm) 평균(표준편차)	체 중(kg) 평균(표준편차)	신 장(cm) 평균(표준편차)
저체중	35.503(4.189)	145.641(6.062)	36.461(4.870)	148.310(6.840)
정상체중	45.066(6.644)	149.353(7.467)	45.664(5.082)	150.476(6.541)
과체중	55.142(5.105)	152.542(6.227)	53.450(4.189)	151.090(5.596)
비만	59.355(10.992)	150.330(9.335)	64.800(7.307)	156.271(6.537)
전 체	41.096(9.102)	147.515(7.122)	39.999(7.743)	149.133(6.852)

정상체중군 150.47cm(표준편차, 6.541), 저체중군 148.31cm(표준편차, 6.840)로 나타나 평균 체중과 신장이 남, 여 모두 비만군에서 가장 높았으며 여자가 남자에 비해 평균 체중과 신장이 대부분 높게 나타났다(표 2-2).

3. 비만상태에 따른 체형만족도

비만상태에 따른 체형만족도는 전체($x^2=110.31$, $p=.000$), 남($x^2=99.97$, $p=.000$), 여($x^2=62.23$, $p=.000$)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에서 저체중군은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는 경우가 38.8%, 날씬해지길 원하는 경우가 26.7%, 정상체중군에서는 날씬해지길 원하는 경우가 41.3%, 만족하는 경우가 32.0%, 과체중군에서 날씬해지길 원하는 경우가 71.3%, 만족하는 경우가 24.2%, 비만군에서 날씬해지길 원하는 경우가 86.2%, 만족하는 경우가 10.6%이었다. 남자에서 저체중군은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는 경우가 25.7%, 날씬해지길 원하는 경우가 17.1%, 정상체중군에서는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는 경우가 38.8%, 날씬해지길 원하는 경우가 25.0%, 과체중군에서는 날씬해지길 원하는 경우가 61.0%, 만족하는 경우가 31.7%, 비

만군에서 날씬해지길 원하는 경우가 83.3%, 만족하는 경우가 12.5%이었다. 여자에서 저체중군은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는 경우가 42.3%, 날씬해지길 원하는 경우가 29.2%, 정상체중군에서는 날씬해지길 원하는 경우가 60.9%, 만족하는 경우가 23.7%, 과체중군에서는 날씬해지길 원하는 경우가 88.0%, 만족하는 경우가 12.0%, 비만군에서는 날씬해지길 원하는 경우가 95.5%, 만족하는 경우가 4.5%로 나타났다(표 3).

4. 비만상태에 따른 체형존중감

비만상태에 따른 체형존중감은 전체($F=8.634$, $p=.000$), 남($F=11.738$, $p=.000$), 여($F=4.502$, $p=.004$)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에서 정상체중군은 체형존중감이 평균 12.764점(표준편차 5.344)으로 가장 높았고 비만군에서 평균 9.840점(표준편차 4.638)으로 가장 낮았다. 남자에서는 과체중군이 체형존중감이 평균 14.780점(표준편차 4.601)으로 가장 높았고 비만군이 평균 10.166점(표준편차 4.246)으로 가장 낮았으며, 여자에서는 저체중군이 체형존중감이 평균 12.284점(표준편차 4.246)으로 가장 높았고 비만군이

<표 3> 비만상태에 따른 체형만족도

구 분	남			여			전 체		
	날씬원함 실수(%)	만족함 실수(%)	동등원함 실수(%)	날씬원함 실수(%)	만족함 실수(%)	동등원함 실수(%)	날씬원함 실수(%)	만족함 실수(%)	동등원함 실수(%)
저체중	6(17.1)	9(25.7)	20(57.2)	38(29.2)	55(42.3)	37(28.5)	44(26.7)	64(38.8)	57(34.5)
정상체중	47(25.0)	73(38.8)	68(36.2)	95(60.9)	37(23.7)	24(15.4)	142(41.3)	110(32.0)	92(26.7)
과체중	25(61.0)	13(31.7)	3(7.3)	22(88.0)	3(12.0)	0(.0)	47(71.3)	16(24.2)	3(4.5)
비만	60(83.3)	9(12.5)	3(4.2)	21(95.5)	1(4.5)	0(.0)	81(86.2)	10(10.6)	3(3.2)
x^2	99.97			62.23			110.31		
p	.000			.000			.000		

평균 8.772점(표준편차 5.723)으로 가장 낮았다(표 4).

5. 비만도와 체형만족도 및 체형존중감과의 관계

비만도와 체형만족도($r = -.2081, p = .000$), 비만도와 체형존중감($r = -.2250, p = .000$)은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비만도가 높을수록 체형만족도와 체형존중감이 낮았다(표 5).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만상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만상태는 전체에서는 성별($\chi^2=88.136, p=.000$), 체형에 대한 인식($\chi^2=242.371, p=.000$)에서, 남자에서는 부의 체형($\chi^2=15.11, p=.019$), 체형에 대한 인식($\chi^2=138.95, p=.000$)에서, 여자에서는 모의 학력($\chi^2=19.46, p=.022$), 체형에 대한 인식($\chi^2=143.35, p=.000$)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에서 성별로는 남자에서 비만은 21.4%, 여자에서 비만은 6.6%로 남자인 경우 비만이 더 많았으며, 체형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체형이 말랐다고 인식하는 경우 비만은 0.7%,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비만은 9.3%, 비만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비만은 64.6% 이었다. 남자에서 부의 체형이 마른 경우 비만은 21.2%, 보통인 경우 19.1%, 비만인 경우 42.9%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은 체형이 말랐다고 인식하는 경우 비만은 1.3%,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비만은 16.6%,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비만은 83.4% 이었다. 여자에서 모의 학력이 초등학교에서는 실제 비만은 없었고 중학교에서는 비만이 11.1%, 고등학교에서는 4.9%, 대졸이상에서는 13.2%로 나타났고, 체형에 대한 인식에서는 말랐다고 인식하는 경우 실제 비만은 없었고, 보통이라고 인식한 경우 비만은 2.6%, 비만하다고 인식한 경우 비만은 43.3% 이었다(표 6-1, 표 6-2).

<표 4> 비만상태에 따른 체형존중감

구 분	남	여	전 체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저체중	13.257(4.231)	12.284(4.604)	12.490(4.532)
정상체중	13.505(4.846)	11.871(5.779)	12.764(5.344)
과체중	14.780(4.601)	9.360(4.526)	12.727(5.255)
비만	10.166(4.246)	8.772(5.723)	9.840(4.638)
F	11.738	4.502	8.634
P	.000	.004	.000

<표 5> 비만도, 체형만족도 및 체형존중감과의 관계

(n=669)

	체형만족도	체형존중감
비만도	- .2081 (p= .000)	- .2250 (p= .000)

<표 6-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만상태

(n=669)

특 성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	χ^2	P
성 별						
남	35 (10.4)	188 (56.0)	41 (12.2)	72 (21.4)	88.136	.000
여	130 (39.0)	156 (46.8)	25 (7.6)	22 (6.6)		
형제 순위						
1	84 (24.1)	182 (52.4)	30 (8.6)	52 (14.9)	11.457	.075
2	56 (22.2)	127 (50.4)	33 (13.1)	36 (14.3)		
3 이상	25 (36.2)	35 (50.8)	3 (4.3)	6 (8.7)		
부의 학력						
초등졸	7 (26.9)	10 (38.5)	3 (11.5)	6 (23.1)	15.678	.073
중졸	17 (24.6)	32 (46.4)	4 (5.8)	16 (23.2)		
고졸	105 (25.6)	208 (50.7)	49 (12.0)	48 (11.7)		
대졸 이상	36 (22.0)	94 (57.3)	10 (6.1)	24 (14.6)		
모의 학력						
초등졸	9 (22.5)	18 (45.0)	7 (17.5)	6 (15.0)	13.947	.124
중졸	29 (27.6)	47 (44.8)	10 (9.5)	19 (18.1)		
고졸	107 (24.1)	240 (53.9)	46 (10.3)	52 (11.7)		
대졸 이상	20 (25.3)	39 (49.4)	3 (3.8)	17 (21.5)		
부의 체형						
마름	34 (30.4)	57 (50.9)	6 (5.3)	15 (13.4)	11.418	.076
보통	113 (23.1)	261 (53.4)	51 (10.4)	64 (13.1)		
비만	18 (26.5)	26 (38.2)	9 (13.2)	15 (22.1)		
모의 체형						
마름	27 (31.4)	43 (50.0)	5 (5.8)	11 (12.8)	9.821	.132
보통	124 (24.7)	260 (51.7)	54 (10.7)	65 (12.9)		
비만	14 (17.5)	41 (51.3)	7 (8.7)	18 (22.5)		
체형에 대한 인식						
마름	63 (46.0)	71 (51.8)	2 (1.5)	1 (0.7)	242.371	.000
보통	102 (22.5)	256 (56.5)	53 (11.7)	42 (9.3)		
비만	0 (.0)	17 (21.5)	11 (13.9)	51 (64.6)		
성 적						
상	45 (24.7)	102 (56.1)	16 (8.8)	19 (10.4)	8.092	.231
중	95 (26.7)	170 (47.7)	39 (11.0)	52 (14.6)		
하	25 (19.0)	72 (55.0)	11 (8.4)	23 (17.6)		

<표 6-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만상태

특 성	남				χ ²	p	여				χ ²	p
	저체중 실수(%)	정상체중 실수(%)	과체중 실수(%)	비만 실수(%)			저체중 실수(%)	정상체중 실수(%)	과체중 실수(%)	비만 실수(%)		
형제 순위												
1	18(10.5)	97(56.7)	18(10.5)	38(22.3)	3.81	.701	66(37.3)	85(48.0)	12(6.8)	14(7.9)	9.46	.149
2	13(9.8)	70(53.0)	21(15.9)	28(21.3)			43(35.8)	57(47.5)	12(10.0)	8(6.7)		
3 이상	4(12.1)	21(63.6)	2(6.1)	6(18.2)			21(58.3)	14(38.9)	1(2.8)	0(.0)		
부의 학력												
초등졸	3(17.6)	9(52.9)	1(5.9)	4(23.6)	11.64	.234	4(44.4)	1(11.2)	2(22.2)	2(22.2)	14.07	.120
중졸	3(7.5)	21(52.5)	2(5.0)	14(35.0)			14(48.3)	11(37.9)	2(6.9)	2(6.9)		
고졸	19(9.8)	106(54.9)	31(16.1)	193(19.2)			86(39.6)	102(47.0)	18(8.3)	11(5.1)		
대졸 이상	10(11.6)	52(60.5)	7(8.1)	17(19.8)			26(33.3)	42(53.8)	3(3.8)	7(9.1)		
모의 학력												
초등졸	2(8.3)	13(54.2)	3(12.5)	6(25.0)	8.84	.452	7(43.7)	5(31.3)	4(25.0)	0(.0)	19.46	.022
중졸	5(9.8)	29(56.9)	4(7.8)	13(25.5)			24(44.4)	18(33.4)	6(11.1)	6(11.1)		
고졸	22(10.0)	124(56.4)	33(15.0)	41(18.6)			85(37.8)	116(51.6)	13(5.7)	11(4.9)		
대졸 이상	6(14.6)	22(53.7)	1(2.4)	12(29.3)			14(36.8)	17(44.7)	2(5.3)	5(13.2)		
부의 체형												
마름	8(15.4)	31(59.6)	2(3.8)	11(21.2)	15.11	.019	26(43.3)	26(43.3)	4(6.7)	4(6.7)	6.85	.334
보통	27(10.5)	144(56.3)	36(14.1)	49(19.1)			86(36.9)	117(50.3)	15(6.4)	15(6.4)		
비만	0(.0)	13(46.4)	3(10.7)	12(42.9)			18(45.0)	13(32.5)	6(15.0)	3(7.5)		
모의 체형												
마름	3(8.8)	19(55.9)	2(5.9)	10(29.4)	7.57	.271	24(46.2)	24(46.1)	3(5.8)	1(1.9)	5.74	.452
보통	28(10.8)	147(56.8)	36(13.9)	48(18.5)			96(39.3)	113(46.3)	18(7.4)	17(7.0)		
비만	4(9.3)	22(51.2)	3(7.0)	14(32.5)			10(27.0)	19(51.4)	4(10.8)	4(10.8)		
체형에 대한 인식												
마름	17(22.1)	57(74.0)	2(2.6)	1(1.3)	138.95	.000	46(76.7)	14(23.3)	0(.0)	0(.0)	143.35	.000
보통	18(8.3)	128(59.0)	35(16.1)	36(16.6)			84(35.6)	128(54.2)	18(7.6)	6(2.6)		
비만	0(.0)	3(7.1)	4(9.5)	35(83.4)			0(.0)	14(37.8)	7(18.9)	16(43.3)		
성 적												
상	10(10.8)	57(61.2)	10(10.8)	16(17.2)	2.42	.877	35(39.3)	45(50.6)	6(6.7)	3(3.4)	7.33	.291
중	18(10.5)	90(52.6)	23(13.5)	40(23.4)			77(41.6)	80(43.2)	16(8.6)	12(6.6)		
하	7(9.7)	41(56.9)	8(11.1)	16(22.3)			18(30.5)	31(52.5)	3(5.1)	7(11.9)		

IV. 고 찰

연구대상자의 전체 비만율은 14%로서 남학생이 21.4%, 여학생이 6.6%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985년 한국 소아발육 표준치를 이용하여 조사한 정명숙 등(1995)의 연구에서 비만율이 13.2%로 남아에서는 16.8%, 여아에서는 10.0%로 보고되어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은 비만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기준이 다르고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의 범위가 6학년에 제한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대상자의 평균체중과 신장은 남자가 41.09kg, 147.51cm, 여자가 39.99kg, 149.13cm 이었다. 이를 1997년에 실시한 전국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전국 평균치와 비교해 보면 남자는 평균체중이 40.46kg, 평균 신장이 146.80cm로 본 연구 대상자가 더 높게 나타났고, 여자는 평균 체중이 40.76kg, 평균 신장이 148.36cm 로 본 연구 대상자가 평균 신장은 더 높게 나타났으나 평균 체중은 낮게 나타났다.

비만상태에 따른 체형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체형만족도는 전체적으로 저체중군에서 38.8%, 남자에서는 정상체중군에서 38.8%, 여자에서는 저체중군에서 42.3%로 가장 높았으며, 남 여 모두 비만군에서 체형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또한 정상체중군에서 남학생의 36.2%가 현재보다 더 살찌기를 원하였고, 여학생의 60.9%가 현재보다 더 날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진아 등(1997)의 연구에서 남학생은 정상체중군에서, 여학생의 경우는 저체중군에서 체형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정상체중군의 남학생의 41%가 현재보다 더 살찌기를 원하고 여학

생의 61%가 현재보다 더 날씬해지길 희망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것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비만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지 못하고 정상체중을 가진 사람들도 그들의 체중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Harris et al, 1990), 남학생의 경우 정상체중인데도 더 살찌기를 원하여 보다 건강하고 남성다와 보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특히 여학생은 정상체중인데도 더 날씬해지길 희망하여 표준체중의 개념과 차이가 있었고 이로 인해 잠재적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비만상태에 따른 체형존중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 여 모두 비만군에서 체형존중감이 가장 낮았으며 남자에서는 과체중군이 14.78점, 여자에서는 저체중군 12.284점으로 체형존중감이 가장 높았고 남자가 여자에 비해 모든 체중군에서 체형존중감이 더 높았다. 이는 김순남(1998)과 박진아(1997)의 연구에서 남 여 모두 비만군에서 체형존중감이 가장 낮고 여자에서 저체중군이 체형존중감이 가장 높았으며, 남자에서는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에서 체형존중감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부분 일치하였다. 따라서 비만은 남녀 모두가 부정적인 상태로 생각하고 비만할수록 체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낮음을 의미하며 남자는 미의 기준을 남성다움에 여자는 날씬한 것에 두는 사회적 기대와 함께 여자가 남자에 비해 외모에 더 민감하고 관심을 가지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비만도와 체형만족도 및 체형존중감과의 관계에서 비만도와 체형만족도, 비만도와 체형존중감은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비만도가 높을수록 체형만족도와 체형존중감이 낮았다.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송홍지 등(1996)의 연구

에서 BMI가 높을수록 자신의 체형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였고, 체형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순남(1998)의 연구에서는 체형존중감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변수는 비만도이었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만상태는 성별, 체형에 대한 인식, 모의 학력, 부의 체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 비만상태는 남자의 21.4%, 여자의 6.6%가 비만으로 나타나 남학생의 비만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남학생이 더 높은 비만율을 보인 것과 일치하였다(정미순, 1988 ; 정명숙, 1995 ; Sisson et al, 1997 ; 김순남, 1998). 체형에 대한 인식에서 비만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학생은 전체 대상자의 11.8%, 남학생의 12.38%, 여학생의 11.11%로 나타나 실제 비만율과 비교하였을 때 남학생은 낮고, 여학생은 높게 비만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실제체중 보다 더 비만하게 지각하고 있었다. 남자의 경우, 부의 체형이 비만한 경우 실제 비만인 학생은 42.9%로 나타나 부의 체형과 비만상태와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는데 이는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서영경, 1989 ; 최영이, 1989 ; 정명숙, 1995)에서 아버지가 비만한 경우 비만한 학생이 더 많았다는 연구결과와 부합되었다. 여자의 경우, 모의 학력과 비만상태와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김나미(1997), 강영실(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나 한편으로 어머니의 학력과 비만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는 연구(최유금, 1990 ; 정승교와 박종성, 1997 ; 김순남, 1998)도 보고되어 일관성이 없었다.

그러므로 초등학생의 비만상태는 체형만족도 및 체형존중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고 특히

체형만족도와 체형존중감은 성별에서 차이가 나타나 남학생은 정상체중에서 체형만족도가 가장 높고 과체중에서 체형존중감이 가장 높는데 반해 여학생은 모두 저체중군에서 체형만족도와 체형존중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이 표준체중의 개념과 비현실적인 체중과의 차이를 알고 자신의 체형을 바르게 평가하며 올바른 신체상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비만상태에 따른 체형만족도와 체형존중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199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천시 5개 초등학교 6학년 아동 669명을 대상으로 신체계측 자료와 설문지 조사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비만상태는 전체의 14.0%, 남자의 21.4%, 여자의 6.6%가 비만이었으며, 평균체중은 남자가 41.09kg(표준편차, 9.102), 여자가 39.99kg(표준편차, 7.743)이었고 평균신장은 남자가 147.51cm(표준편차, 7.122), 여자가 149.13cm(표준편차, 6.852)이었다.
2. 비만상태에 따른 체형만족도는 전체($x^2=110.31$, $p=.000$), 남($x^2=99.97$, $p=.000$), 여($x^2=62.23$, $p=.000$)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에서는 저체중군의 38.8%, 정상체중군의 32.0%, 과체중군의 24.2%, 비만군의 10.6%가 체형에 대해 만족하였고, 남자에서는 저체중군의 25.7%,

정상체중군의 28.8%, 과체중군의 31.7%, 비만군의 12.5%가 체형에 대해 만족하였으며, 여자에서는 저체중군의 42.3%, 정상체중군의 23.7%, 과체중군의 12.0%, 비만군의 4.5%가 체형에 대해 만족하였다.

3. 비만상태에 따른 체형존중감은 전체($F=8.634$, $p=.000$), 남($F=11.738$, $p=.000$), 여($F=4.502$, $p=.004$)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평균 체형존중감 점수는 전체에서 정상체중군이 12.764점(표준편차 5.344)으로 가장 높았고 비만군이 9.840점(표준편차 4.638)로 가장 낮았으며, 남자에서는 과체중군이 14.780점(표준편차 4.601), 여자에서는 저체중군이 12.284점(표준편차 4.604)으로 체형존중감이 가장 높았고, 남(평균 10.166점, 표준편차 4.246), 여(평균 8.772점, 표준편차 5.723) 모두 비만군에서 체형존중감이 가장 낮았다.

4. 비만도와 체형만족도 및 체형존중감과의 상관관계는 비만도와 체형만족도($r=-.2081$, $p=.000$), 비만도와 체형존중감($r=-.2250$, $p=.000$)은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비만도가 높을수록 체형만족도와 체형존중감이 낮았다.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만상태는 전체에서는 성별($\chi^2=88.136$, $p=.000$), 체형에 대한 인식($\chi^2=242.371$, $p=.000$)에서, 남자에서는 부의 체형($\chi^2=15.11$, $p=.019$), 체형에 대한 인식($\chi^2=138.95$, $p=.000$)에서, 여자에서는 모의 학력($\chi^2=19.46$, $p=.022$), 체형에 대한 인식($\chi^2=143.35$, $p=.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체에서 성별은 남자에서 비만은 21.4%, 여자에서 비만은 6.6%로 남자가 비만인 경우

가 더 많았고, 체형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체형이 말랐다고 인식하는 경우 비만은 0.7%,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비만은 9.3%, 비만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비만은 64.6%로 나타났다. 남자에서 부의 체형이 다른 경우 실제 비만인 학생은 21.20%, 보통인 경우 19.1%, 비만인 경우 42.9%로 나타났고,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은 체형이 말랐다고 인식하는 경우 비만은 1.3%,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비만은 16.6%,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비만은 83.4% 이었다. 여자에서 모의 학력이 초등졸에서는 실제 비만은 없었고 중졸에서는 비만이 11.1%, 고졸에서는 4.9%, 대졸이상에서는 13.2%로 나타났고, 체형에 대한 인식에서는 말랐다고 인식하는 경우 실제 비만은 없었고, 보통이라고 인식한 경우 비만은 2.6%, 비만하다고 인식한 경우 비만은 43.3% 이었다.

참고문헌

1. 강연실. 국민학교 저학년 아동에 있어서 비만, 정상의 체격 특성과 인성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2. 김나미. 유아의 식습관 및 일반특성이 유아의 비만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3. 김순남. 초등학교에서 비만정도, 체형만족도 그리고 체형존중감.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4. 문정순, 정승교. 행동수정프로그램과 에어로빅 운동의 과체중 여자 중학생 비만관리 효과 비교. 대한간호학회지 1996; 26(1): 799-807.
5. 박진아 외 5인.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의 체형에 대한 만족도. 가정의학지 1997; 18(6): 622-631.

6. 박혜순. 청소년 비만과 체중조절. 가정의학회지 1997; 18(11): 1171-1182.
7.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회. 임상영양관리 지침서. 1994.
8. 서영경. 비만아동의 비만에 관련된 특성과 생활양상.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9. 송홍지, 안성훈, 박민선, 유태우, 최영인. 청소년에서 체형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체중조절형태. 가정의학회지 1996; 17(11S): 1146.
10. 이동환. 비만의 진단과 관리. 소아과 1996; 39(8): 1055-1065.
11. 정명숙 외 7인. 광주지역 국민학교 아동의 비만 정도 및 그 관련요인에 관한 조사. 소아과 1995; 38(11): 1547-1557.
12. 정미순. 서울 소재 일개교 중학생의 비만과 생활습관에 관한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13. 정승교, 박종성. 여중생의 체중조절 실태, 비만도 및 신체상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997; 14(2): 171-184.
14. 조선진, 김초강. 일부 여대생의 비만수준 및 체중조절형태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997; 14(2): 1-15.
15. 최영이. 서울시내 일부 국민학교 학생의 성장발달 및 비만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16. 최우금. 여자고등학생의 체격에 따른 성격특성.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17. Blaesing, S., Brockhaus, J. The development of body image in the child. MCNA 1972; 7(4): 602.
18. Harris, M.B., Waschull, S., Walters, L. Feeling fat ; motivation, knowledge and attitudes of overweight women and men. Psychological Reports 1990; 67(3 pt 2): 1191-1201.
19. Lauer, R.M, Clarke, W.R, Mahoney, L.T, Witt, J. Childhood predictors for high adult blood pressure : the Muscatine study. Ped. Clin. North America 1993; 40(1): 23-39.
20. McCarthy, M. The thin ideal, depression and eating disorders in women. Behav. Res. ther. 1989; 28(3): 205-215.
21. Mendelson, B.K., White, D.R. Relation between body-esteem and self-esteem of obese and normal children. Percept Mot. Skills 1982; 54: 899-905.
22. Mores, N., Banilivy, M., Lifshitz, F. Fear of obesity among adolescent girls. Pediatrics 1989; 83(3): 393-398.
23. Simmons, R.G., Rosenberg, F., Rosenberg, M. Disturbance in the self-image at adolescence. American Social Review 1973; 38: 553-558.
24. Sisson, B.A., Franco, S.M., Carlin, W.M., Mitchell, C.K. Body fat analysis and perception of body image. Clinical Pediatrics 1997; 36(7): 415-418.

<ABSTRACT>

The Body Shape Satisfaction and Body Shape Esteem according to the State of Obesity in 12-year old Children

Kyung-Shin Paek

Department of Nursing, Se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body shape satisfaction and body shape esteem according to the state of obesit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1st to 31st, 1999 using the questionnaire and the physical examination record. The subjects were 669 in 12-year old children.

Data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percentages, crosstabs, ANOVA, pearson correlation using the SPSS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prevalence of overweight was 14.0% of total students, 21.4% of mail students and 6.6% of female students.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body shap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state of obesity in total students($\chi^2 = 110.31$, $p = .000$), in mail students($\chi^2 = 99.97$, $p = .000$), in female students($\chi^2 = 62.23$, $p = .000$). The percentages of the body shape satisfaction were highest the underweight group in total and female students but in mail students the normal weight group was highest

3.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body shape esteem according to the state of obesity in total students($F = 8.634$, $p = .000$), in mail students($F = 11.738$, $p = .000$), in female students($F = 4.502$, $p = .004$). The mean scores of body shape esteem were highest the normal weight group in total students, overweight group in mail students and underweight group in female students. The higher the state of obesity was, the lower body shape esteem.

4. The relationships between body shape satisfaction, body shape esteem and obesity index were significant. Obesity index were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related to body shape satisfaction($r = -.2081$, $p = .000$), to body shape esteem($r = -.2250$, $p = .000$).

5.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tate of obesity according to sex($\chi^2 = 88.136$, $p = .000$) and the perception of body shape($\chi^2 = 242.371$, $p = .000$) in total studen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tate of obesity according to the body shape of father($\chi^2 = 15.11$, $p = .019$), the perception of body shape($\chi^2 = 138.95$, $p = .000$) in mail studen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tate of obesity according to the education of mother($\chi^2 = 19.46$, $p = .022$), the perception of body shape($\chi^2 = 143.35$, $p = .000$) in female students.